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505

2016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 나타난 성과 인종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 나타난 성과 인종

Gender and Race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201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진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 나타난 성과 인종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민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민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경 규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금 희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인)

201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Ⅱ. 혼종적 존재로서의 앙투아네트 ····· 4

Ⅲ.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의 아네트 ····· 13

Ⅳ. 결혼으로 심화된 성과 인종 갈등 ····· 19

Ⅴ. 여성 인물들의 결말 ····· 29

Ⅵ. 결 론 ····· 39

인용문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Gender and Race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Kim Min-a
Adviser : Prof. Jung-Hwa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racial tension and gender conflict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focusing on main female characters, Antoinette, Annette, and Christophine. I examine the complex identity of Antoinette, a Creole woman who is situated between white Europeans and Afro-Caribbeans in the West Indies. And then I analyze Annette's ambivalent position in the dynamics of race and gender by examining how she is both a perpetrator and a victim. Through Antoinette, Annette, and Christophine, Rhys suggests that patriarchy and imperialism are inter-connected forces to exacerbate lives of women in the West Indi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9세기 영국의 여성들은 집안의 대표자인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며 수동적인 존재가 되도록 교육 받았다. 여성들에게 강요된 여성상의 모습은 자애롭고, 순종적이며, 순결한 모습이었다. 가부장적인 사회 내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삶을 잃은 채 살아왔다.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는 『제인 에어』(*Jane Eyre*)를 통해 남성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브론테는 천사 같은 여인상을 강요받았던 여성이 사회와 남성이 요구하는 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제인 에어』의 주인공 제인(Jane)은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찾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한편 현명하고 주체적인 여성인 제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성으로 버싸(Bertha)라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크리올(Creole) 여성인 버싸는 광기에 사로잡혀 제인의 드레스를 찢고 저택에 불을 지르는 인물이다. 가부장제를 탈피하여 주체적인 여성을 추구하는 브론테의 의도에서 버싸는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크리올 작가 진 리스 (Jean Rhys)는 『제인 에어』에서 버싸라는 인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크리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리스의 반응에 대해 김정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인 에어』에서 다락방에 갇힌 미친 여자로만 등장하는 버싸에 대해 개인적인 분노를 느꼈던 것은 당연한 일 일 것이다”(7). 리스는 광녀로 낙인 찍혀 외로운 삶을 살다 간 버싸라는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녀는 1966년 출간된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라는 작품을 통해서 크리올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제인 에어』의 버싸는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 주인공 앙투아네트(Antoinette)로 재탄생했다. 작품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앙투아네트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리스는 앙투아네트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왜 저택에 불을 지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리스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인 앙투아네트가 당한 성적 갈등을 상세하게 밝혀준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 백인의 시선에서 광기로 치부된 크리올이 겪는 인종 갈등을 꼬집는다.

흑과 백 사이의 심각한 인종 갈등을 만들어낸 제국주의는 국가가 가진 힘을 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하여 다른 국가를 식민지화하여 수탈하고 속박해 왔다. 백인들은 피부색이 다른 흑인을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로 치부하고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 경제력 등을 빼앗았다.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던 흑인 노예들은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을 시도했다. 이후 자본주의와 인도주의적 관점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마침내 노예제는 폐지된다.

노예 해방 이후의 서인도제도를 배경으로 한『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크리올의 시각에서 흑백의 이분법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인종 갈등을 드러낸다. 크리올은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으로 유럽 백인과 식민지의 흑인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리스는 노예제 폐지 이후 과거의 식민지였던 서인도제도의 인종 갈등을 앙투아네트라는 인물과 그녀의 가족을 통해 묘사한다. 크리올인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은 제국주의가 빚어낸 갈등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 홍성주의 말처럼 "노예해방령이 선포된 직후인 1830년대의 자마이카에서의 백인들의 삶은 불안과 불안정으로 집약"(222)할 수 있다.

유럽 백인들은 식민지의 문화를 접한 크리올을 자신과 같은 순수한 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대농장을 싼 값에 구입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위해 자메이카(Jamaica)로 온 유럽 백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크리올을 무시한다. 또한 자메이카의 흑인들의 입장에서 노예주였던 크리올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다. 유승은 이와 같은 크리올의 처지에 대해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서 배척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132).

리스는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시대 배경과 공간 배경을 가부장 제도가 팽배한 사회의 식민지로 설정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와 제국주의를 비판한다. 즉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개인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는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와 제국주의가 주는 비극을 독자에게 전한다. 특히 앙투아네트를 비롯한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가부장제와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보여준다.

앙투아네트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으로 유럽 백인과 흑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며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 혼란스러운 정체성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 그녀는 영국 남자 로체스터(Rochester)와 결혼함으로써 더욱 심화된 갈등을 겪는다. 영국 백인의 자존심을 가진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를 온전한 부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그는 앙투아네트가 가진 성격과 문화, 정체성을 말살시켜 순종적인 부인상에 맞추려고 한다. 결국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이름과 가족 같은 크리스토핀(Christophine)을 잃고 영국의 저택에 감금된다. 앙투아네트는 남편에게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과 거리가 먼 크리올 광녀로 인식된 것이다.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아네트(Annette)는 프랑스계 크리올이라는 이유로 영국계 크리올 사회에서도 소속되지 못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영국 남자 메이슨(Mason)과의 재혼은 아네트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피에르(Pierre)를 잃게 만든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네트는 남편에게 증오를 표출한 죄로 요양원에 갇히게 된다. 이 두 모녀의 결혼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성적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본 논문은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성과 인종 갈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등장인물들이 겪는 성과 인종 갈등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봄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와 제국주의가 이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앙투아네트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에 대해 다뤄본다. 그 다음 장에서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아네트의 상황과 메이슨과의 갈등을 살펴본다. 이후 주인공 앙투아네트의 결혼 생활을 통해 크리올 여성이 겪는 심화된 성과 인종 갈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아네트, 크리스토핀, 앙투아네트의 결말을 통해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인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혼종적 존재로서의 앙투아네트

1834년 영국에서 공표된 노예해방령은 흑인 노예들의 해방과 더불어 식민지 노예주들의 몰락이라는 결과도 함께 가져온다. 식민지에서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대농장을 운영하던 백인들이 노예제 폐지로 인해 그들의 경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흑인들의 노동력으로 운영되었던 자메이카의 대농장들은 헐값에 팔려나가거나 문을 닫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 노예주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로 약속했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민지의 지배자였던 백인 노예주들은 점차 몰락하게 되고 해방된 흑인들의 멸시를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앙투아네트는 식민지 백인 노예주의 딸로서 식민지에서 태어나 자란 크리올 여성이다.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크리올인 그녀는 흑인과 유럽 백인의 경계선에 서게 된다. 아버지의 사망과 노예해방으로 인해 앙투아네트와 가족들 역시 가난에 처하지만 영국인 이모부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앙투아네트의 영국인 이모부는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을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싫어한다. 아래에 인용한 앙투아네트의 영국인 이모부에 대한 설명은 유럽 백인들이 크리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 말이 안 되다니요? 이모와 이모부는 당시 영국에 살았고, 이모가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이모부가 싫어했대요. 이모부는 서인도제도를 싫어했거든요. 얼마 전 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모가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이모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부자도 아닌데.[1)]

> It isn't nonsense, they lived in England and he was angry if she wrote to us. He hated the West Indies. When he died not long ago she came home, before that what could she do? *She* wasn't rich. (14)

앙투아네트의 영국인 이모부는 영국에 거주하며 자신의 부인이 크리올과 어울리지

1) 본 논문에 사용된 *Wide Sargasso Sea*의 우리말 번역은 윤정길의 번역판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따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못하도록 부인의 행동을 제한한다. 가부장적 사회인 영국의 관습에 따라 앙투아네트의 이모는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이다. 크리올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조차 싫어하던 영국인 남편이 죽은 후에야 앙투아네트의 이모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앙투아네트의 영국인 이모부를 비롯한 유럽의 백인들은 이처럼 식민지의 크리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의 변화가 가져온 위기 속에서 크리올들은 유럽 백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노예제가 폐지되고 보상이 지연되는 식민지의 생활에서 그들만의 결속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아네트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마르티니크(Martinique)출신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은 자메이카의 백인 크리올들은 출신이 다른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을 같은 크리올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크리올 무리에 합류하지 못한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은 이런 면에서 한층 복잡한 인종 갈등을 겪는다. 그들은 크리올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백인으로부터 거부당할 뿐 아니라 같은 크리올 사이에서도 고립된다. 또한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소유하고 다스렸던 흑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입장으로 전락한다. 흑인 노예들의 노동으로 풍족했던 시절을 모르는 앙투아네트 역시 크리올로서 흑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된다. 흑인들은 앙투아네트를 만날 때마다 “흰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위협하고 배척한다.

> 나는 낯선 흑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했고 흰 바퀴벌레라고 불렀다. 잠자는 개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가. 어느 날 꼬마 검둥이 계집애가 나를 쫓아오며, “가버려라, 이 흰 바퀴벌레야. 사라져라, 사라져라. 네가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사라져버려.”라고 노래 부르듯 종알거렸다.
>
> I never looked at any strange negro. They hated us. They called us white cockroaches. Let sleeping dogs lie. One day a little girl followed me singing, 'Go away white cockroach, go away, go away.' I walked fast, but she walked faster. 'White cockroach, go away, go away. Nobody want you. Go away.' (9)

위의 일화는 흑인들이 크리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증오가 흑인 전체 사회에 나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막론하고 퍼져있음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자유를 잃고 착취당했던 흑인의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크리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앙투아네트는 흑인 소녀의 조롱을 벗어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낡은 담장에 붙어 앉는다. 그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며 밤이 되도록 움직이지 못한다. 앙투아네트는 초록색 이끼로 덮인 낡은 담장에 붙어 앉아 불안정한 현실에서 도피한다. 앙투아네트의 흑인 유모 크리스토핀은 혼자 있는 앙투아네트를 찾아낸다. 이후 크리스토핀은 앙투아네트를 위해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딸을 집으로 데려온다.

크리스토핀의 친구의 딸인 티아(Tia)는 얼마 되지 않아 앙투아네트와 친구가 된다. 낯선 흑인을 경계하고 담장 옆에서 안정을 느끼던 앙투아네트는 거의 매일 흑인 소녀 티아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물놀이가 끝나면 티아는 불을 지펴 앙투아네트와 함께 쇠 냄비에 초록색 바나나를 삶아 손으로 집어먹는다. 이러한 행동은 티아가 가진 문화를 앙투아네트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백인들은 접시에 음식을 덜어 포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먹는다. 앙투아네트는 백인의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티아를 따라 냄비 째 손가락으로 바나나를 집어먹는다. 앙투아네트의 이러한 모습은 백인의 문화와 흑인의 문화가 혼용해 있는 크리올의 특성을 보여준다.

크리올은 백인의 문화와 흑인의 문화를 동시에 지녔음에도 백인과 흑인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못하는 혼종적 존재이다. 앙투아네트 역시 티아와 어울려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흑인인 티아와의 간극이 드러난다. 자메이카의 토착인 티아는 한 번도 불을 지피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 “예리하게 모진 돌들도 티아의 맨발을 상처 내지 못했다”(9)라는 앙투아네트의 말에서 그녀와 티아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앙투아네트와 티아의 간극은 앙투아네트에게 생긴 동전의 일화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나는 “정말 했다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티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3페니로는 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나더러 왜 저를 빤히 쳐다보느냐고 물었다.
> “그래, 가져라, 이 속임수 쟁이 검둥이 계집애야.”
> 나는 지쳐 있었고, 물구나무서기를 할 때 삼킨 물 때문에 배가 아픈 것 같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하면 난 또 얻을 수 있거든."
"내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너희 집은 거지처럼 가난하다던데. 너희는 신선한 생선을 살 돈이 없어 소금에 절인 생선을 먹지? 비가 오면 낡은 집은 비가 새서 비를 받느라 양동이를 들고 여기저기로 뛴다며? 자메이카에는 이제 백인들이 아주 많이 살아.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백인이라고 생각해. 금화를 가졌으니까. 진짜 백인들은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더라. 그들이 너희 곁에 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던데? 전부터 살던 흰둥이는 이제 흰 검둥이야. 그러니 검은 검둥이가 흰 검둥이보다 훨씬 낫다니까."

'I did do it,' I said when I could speak but she shook her head. I hadn't done it good and besides pennies didn't buy much. Why did I look at her like that?
'Keep them then, you cheating nigger,' I said, for I was tired, and the water I had swallowed made me feel sick. 'I can get more if I want to.'
That's not what she hear, she said. She hear all we poor like beggar. We ate salt fish - no money for fresh fish. That old house so leaky, you ran with calabash to catch water when it rain. Plenty white people in Jamaica. Real white people, they got gold money. They didn't look at us, nobody see them come near us. Old time white people nothing but white nigger now, and black nigger better than white nigger. (10)

앙투아네트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티아는 앙투아네트의 3페니를 보게 되자 탐내게 된다. 티아는 자신에게 익숙한 "물속에서 물구나무서기"라는 내기를 걸고 앙투아네트는 그 내기를 받아들인다. 앙투아네트는 두 번이나 물구나무서기를 시도하지만 흑인 소녀 티아의 눈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티아가 제시한 "물속에서 물구나무서기"는 우아한 숙녀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영국의 백인 소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그녀의 "물속에서 물구나무서기" 시도와 실패는 백인의 모습도 흑인의 모습도 아닌 크리올의 모습을 보여준다.

앙투아네트와 티아 사이에 일어난 3페니 사건은 크리올과 흑인이 온전히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한다. 앙투아네트는 "물속에서 물구나무서기"의 성공을 믿어주지 않는 티아에게 "속임수쟁이 검둥이 계집애"라고 지칭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궁핍한 처지를 드러내는 대신 “또 돈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백인의 자존심을 내세운다. 티아 역시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에 대해 흑인이 가지고 있는 본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노예제로 인해 해방 후에도 궁핍한 흑인들은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몰락한 크리올인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이 먹는 소금에 절인 생선은 흑인들이 신선한 생선 대신 먹는 음식이다. 티아를 비롯한 흑인들은 경제력을 상실한 크리올을 더 이상 백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인정하는 진짜 백인은 농장을 인수하기 위해 자메이카에 새로 유입된 영국의 대부호들이다. 티아의 관점에서 앙투아네트는 흑인 본연의 형편보다 못한 하얀 피부의 또 다른 흑인일 뿐이다.

친구가 되어 시간을 함께 보낸 티아의 본심은 앙투아네트를 충격에 빠트린다. 앙투아네트는 찢어진 타월로 몸을 둘러싼 채 티아를 등지고 바위에 앉는다. 한순간 추위를 느낀 그녀는 햇볕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 백인과 흑인 모두의 배척을 받으며 고립된 크리올의 모습과 유사하게 그녀는 강가에 혼자 남겨진다. 인종을 넘어 진실 된 우정을 나누기에는 앙투아네트와 티아 모두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낀다. 앙투아네트가 가진 크리올의 가치관은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백인의 우월의식으로 티아에게 비춰진다. 티아가 가진 흑인의 가치관과 문화는 식민지 노예의 열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앙투아네트에게 비춰진다.

속옷을 입지 않는 티아는 속옷을 제외한 앙투아네트의 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치기한다. 티아는 일부러 자신이 입은 옷을 버려둔 채 “새로 빨아 풀 먹여 잘 다린”(10) 앙투아네트의 옷을 입고 간다. 앙투아네트는 흑인에게 위협을 받을 때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티아의 옷을 입는다. 티아와 앙투아네트의 옷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김봉은은 “서로의 입장이 전복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4)고 말한다. 티아의 이러한 행위에는 크리올의 지위가 결코 흑인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앙투아네트는 몸의 통증과 함께 티아에 대한 미움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간다. 앙투아네트와 티아와의 불완전했던 관계의 단절은 앙투아네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앙투아네트는 크리올로서 백인과 흑인의 교집합적인 문화와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크리올의 결속에도 끼지 못하고 티아와도 단절된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상황에 불안을 느낀다. 앙투아네트가 느끼는 불안감은 그녀의 악몽과 사람을 피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녀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그녀의 혼종성에 있다. 자메이카에서 지배자였던 백인의 문화와 피지배자였던 흑인의 문화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앙투아네트는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류승희는 이런 앙투아네트에 대해 "두 대립되는 가치관 속에서 소속감의 부재로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는 존재로 설명한다(30). 어느 곳에도 소속될 수 없는 앙투아네트는 사람을 벗어나 자연에서 안식을 느낀다.

앙투아네트는 백인도 흑인도 보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길을 골라 다니기 시작한다. 마음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소속된 곳도 없는 앙투아네트의 발걸음은 정처 없이 떠돌며 혼란스러운 그녀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다. 그녀는 동물들조차 지나다니지 않는 풀잎이 무성한 길을 걷다가 몸에 상처가 생겨도 개의치 않는다. 앙투아네트에게 자연이 주는 몸의 상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겨난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국주의의 이념은 가해자인 앙투아네트와 피해자인 흑인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다.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주는 고통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현실 도피를 선택한다.

앙투아네트의 비참한 현실은 어머니가 영국 남성인 메이슨과 재혼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으로 바뀐다. 영국인 메이슨은 자메이카의 대농장을 경영하여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새로운 백인 세력가이다. 영국 출신의 부자 새 아빠가 생기면서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은 가난에서 벗어난다. 메이슨은 앙투아네트의 낡은 집을 새로 수리하고 하인들을 고용한다.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은 소금에 절인 생선 대신 영국 음식을 먹게 된다. 앙투아네트는 "소고기, 양고기, 여러 가지 파이와 푸딩"(17)같은 백인을 상징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

흑인의 위협과 무시를 받는 앙투아네트는 영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영국 소녀가 된 것 같다고 느낀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흑인 유모가 만들어주었던 예전의 음식들을 그리워한다. 앙투아네트는 백인의 문화를 즐기면서도 흑인 유모의 손길을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면모는 크리올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나타낸다. 백인과 흑인 어느 한 곳도 그녀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앙투아네트는 식사 도중 백인 소녀의 그림으로 시선을 돌려 백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갈색 머리에 파란 눈동자는 흑인이 가질 수 없는 백인의 모습이다. 앙투아네트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백인 소녀의 그림을 보며 백인의 모습을 관찰한다. 그리고 식사 중인 메이슨과 아네트의 얼굴을 관찰한다. 누가 보더라도 영국인임을 알 수 있는 메이슨의 얼굴과는 달리 아네트의 얼굴은 다른 백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앙투아네트는 영국인 메이슨과 크리올 아네트의 얼굴을 보며 크리올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녀는 크리올이 흑인들의 조롱처럼 "흰 검둥이"(10)가 아니라고 여기면서도 본토의 백인과는 모습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녀는 크리올인 아네트가 영국인 메이슨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메이슨이 앙투아네트 가족에게 부유한 삶과 행복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노예 해방령이 공표된 이후 경제력은 자메이카에서 다시 우열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성진에 따르면 "경제력을 잃은 크레올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도태될 존재이지만 경제력을 얻은 크레올은 또 다시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는 위협이 된다"(121). 몰락한 이후 굶주린 삶을 살았던 앙투아네트 가족에게 흑인들이 가한 이전의 위협은 조롱의 수준에 불과했다. 메이슨의 재산으로 다시 부를 누리게 된 앙투아네트의 가족에게 가진 흑인들의 불만과 증오는 점차 커져간다.

흑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분노와 증오를 담아 앙투아네트의 집인 쿨리브리(Coulibri) 저택에 불을 지른다. 메이슨은 흑인들의 행동을 "한 떼의 술 취한 검둥이들"(19)의 행동으로 표현한다. 제국주의의 이념에 갇혀 흑인들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는 다음날 아침 흑인들이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리올로서 흑인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앙투아네트 역시 그들이 내뱉는 아우성을 "동물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20)로 느낀다. 이와 같이 쿨리브리 저택 방화 사건은 백인과 크리올, 흑인이 대치된 상황을 통해 극명한 인종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불에 탄 저택을 가까스로 탈출한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은 칼을 든 흑인 남자와 흑인 여자를 만난다. 흑인 여자는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보내주려 하지만 흑인 남자는 후환을 없애려고 한다. 흑인 남자는 크리올과 백인의 조합인 앙투아네트의 가족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는 앙투아네트의 가족들이 경찰서에 가서 흑인들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사고를 증명할 여러 명의 흑인 증인들의 말 보다는 크리올의 말을 경찰이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흑인 남자와 흑인 여자의 대립은 피해자로서 흑인이 살아온 분통의 세월을 대변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앙투아네트는 마차에 올라타며 자신에게 변명하는 흑인 여자와 울음을 터트리는 흑인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들의 모습은 노예주였던 크리올에게 그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감정을 보여준다. 흑인 여자들은 재앙을 겪은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다. 흑인들을 비탄한 처지로 내몰았던 크리올 아네트는 흑인들을 위해 울어준 적이 없다. 앙투아네트 역시 흑인 여자들에게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고 불타고 있는 쿨리브리 저택을 바라본다. 쿨리브리 저택은 백인과 흑인의 무리 속에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지닌 앙투아네트의 안식처였다. 불에 타는 안식처를 바라보던 앙투아네트는 쿨리브리 저택을 대신할 새로운 안식처를 향해 뛰어간다.

3페니 내기 사건으로 티아와 단절되었던 앙투아네트는 티아를 발견하고 뛰어간다. 쿨리브리 저택을 떠나야 하는 긴박한 순간,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그녀의 마음이 정해진다. 크리올로서 백인과 흑인 어느 곳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앙투아네트는 불완전하지만 두 삶을 다 경험해 보았다. 그녀는 티아를 만나 함께 어울려 놀며 티아처럼 행동했다. 또한 앙투아네트는 영국인 새 아빠를 통해 백인 소녀로서의 삶을 경험해 보았다. 그녀가 가진 혼종적인 정체성은 위기의 순간 나약하고 연약했던 그녀에게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 티아를 향해 뛰면서 나는 생각했다. 티아와 함께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티아처럼 될 거야. 쿨리브리를 떠나지 않을래. 결코 떠나지 않을래. 결코. 티아에게 가까이 갔을 때 나는 티아가 울퉁불퉁한 돌을 하나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티아가 그것을 내게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돌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단지 뭔가 축축한 것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생각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티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마주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는 피가, 그리고 티아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채로. 티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내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마치 거울 속의 나를 내가 보듯이.

> As I ran, I thought, I will live with Tia and I will be like her. Not to leave Coulibri. Not to go. Not. When I was close I saw the jagged stone in her hand but I did not see her throw it. I did not feel it either, only something wet, running down my face. I looked at her and I saw her face crumple up as she began to cry. We stared at each other, blood 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my face, tears on hers. It was as if I saw myself. Like in a looking-glass. (24)

티아가 앙투아네트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앙투아네트가 흑인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현지와 강문구는 “티아의 눈물은 이별의 눈물”로, 앙투아네트가 흘린 피는 “그녀의 흑인성이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은 상처”(349)의 의미로 설명한다. 앙투아네트가 가진 크리올의 정체성은 백인과 흑인 중 어느 하나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만들어낸 크리올의 정체성은 어느 한 곳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앙투아네트는 백인의 피부와 혈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사회에서 소외당한다. 또한 그녀는 함께 놀고 시간을 보냈던 흑인 사회에서도 배척당하며 티아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 인종 사회에서 모두 거부당한 앙투아네트는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의 아네트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초래한 성과 인종 갈등은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아네트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네트의 첫 번째 남편인 코즈웨이(Cosway)는 여러 세대에 걸쳐 식민지를 지배해 온 노예주 가문의 사람이다. 코즈웨이의 본처가 사망한 이후 아네트는 어린 나이에 코즈웨이의 후처가 된다. 백인 남성 코즈웨이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 결혼 후에도 많은 서자를 남긴다. 하지만 영국 관습에 따라 코즈웨이에게 소속된 아네트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다.

아네트는 남편의 지속되는 외도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이 가진 수많은 서자들을 남편 대신 살피는 아내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인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이 가진 권리는 제한하고 남성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강요한다. 아네트는 코즈웨이와의 결혼 생활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 가정 내에서 그녀의 위치는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가정 밖에서의 그녀는 노예주 남편을 가진 백인으로서 식민지의 흑인들을 지배하는 지배 계급의 일원이다.

그동안 아네트는 자신이 부리는 흑인들 위에 군림하며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삶을 살아왔다. 남편의 죽음과 노예 해방으로 인해 지배력과 경제력을 상실한 아네트는 크리올의 결속에도 합류하지 못한다. 그녀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 흑인인 크리스토핀의 도움으로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백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그녀가 식민지에서 흑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게 만든다. 아네트는 자신이 소유했던 흑인들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예 해방 이후에도 흑인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한다. 아네트의 이런 태도는 앙투아네트와의 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고드프리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새스도요.”
> “남기야 남았지.”
> 어머니는 성이 난 듯 말씀하셨다.
> “잠잘 데가 필요했겠지, 먹을 것도 필요하고. 특히 그 새스 녀석! 그 애 어미가 제 아들을 여기에 남겨놓고 집을 나갔을 때(잘도 자식을 챙겼지.), 그 때 새스는 보잘것없이 말라빠져 해골 같았지. 이제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다 했더니 이번에는 제 발로 집을 떠나는군. 이젠 다시 우리를 보러 오지도 않을 거다. 고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프리도 나쁜 인간이란다. 새로 온 백인들이 늙은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지 않는 것을 알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거야.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말 두 마리가 먹어 치우는 양을 먹어대고 있으니. 귀가 안 들리는 척하지만 귀머거리도 아니란다. 그냥 뭐든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저런 악마가 또 있을까!"

'Godfrey stayed too,' I said. 'And Sass.'
'They stayed,' she said angrily, 'because they wanted somewhere to sleep and something to eat. That boy Sass! When his mother pranced off and left him here - a great deal *she* cared - why he was a little skeleton. Now he's growing into a big strong boy and away he goes. We shan't see him again. Godfrey is a rascal. These new ones aren't too kind to old people and he knows it. That's why he stays. Doesn't do a thing but eats enough for a couple of horses. Pretends he's deaf. He isn't deaf - he doesn't want to hear. What a devil he is!' (8)

아네트는 몰락한 자신의 집에 남아 있는 흑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네트의 관점에서 남아 있는 고드프리(Godfrey)와 새스(Sass)는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존재이다. 아네트는 오랜 시간 함께 했던 흑인들조차 이기적인 존재로 단정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크리스토핀의 존재도 다른 흑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앙투아네트는 아네트에게 크리스토핀의 나이와 그녀와 함께 지낸 시간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아네트는 자신과 함께 자메이카로 온 크리스토핀의 나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네트에게 크리스토핀은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 흑인일 뿐이다. 아네트는 크리스토핀의 보살핌을 인정하면서도 흑인인 크리스토핀의 도움을 폄하한다.

아네트가 흑인을 무시하는 시선은 앙투아네트와 티아와의 3페니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동전 내기 이후 티아와 분리된 앙투아네트가 티아의 옷을 입고 나타나자 아네트는 불쾌감을 드러낸다. 그녀는 고립된 지금의 자메이카에서 흑인과 화합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아네트는 크리올인 그녀의 정체성을 백인에 두고 영국의 백인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네트는 세련되고 좋은 옷을 입은 백인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자리를 만든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앙투아네트가 입은 흑인 소녀의 옷은 아네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엌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크리스토핀이 냉큼 나오자 어머니는 깨끗한 옷을 찾아다 입히라고 말씀하셨다.
“저건 내다 버려요. 태워버리라고요.”
어머니와 크리스토핀이 실랑이를 벌였다.
“앙투아네트에게 갈아입힐 옷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옷이라고는 딱 두 벌인데, 하나 빨면 하나 입고. 깨끗한 옷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모양이군요. 정말 정신 나갔어.” 크리스토핀이 말했다.

Christophine, who had been in the pantry listening, came at once and was told to find a clean dress for me. 'Throw away that thing. Burn it.'
Then they quarrelled.
Christophine said I had no clean dress. 'She got two dresses, wash and wear. You want clean dress to drop from heaven? Some people crazy in truth.' (11)

앙투아네트가 갈아입을 수 있는 깨끗한 여벌의 옷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아네트의 몰락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앙투아네트가 입고 있는 티아의 옷을 태워버리라는 아네트의 명령은 흑인과 절대 섞일 수 없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아네트는 흑인에게 조롱을 받으며 백인으로부터 고립된 가난한 처지의 크리올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네트는 흑인을 무시하며 백인 우월주의의 허상을 드러낸다. 아네트가 가진 백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그녀가 매일 아침 낡은 승마복을 입고 말을 타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흑인들은 아네트의 낡은 승마복을 비웃지만 아네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식민지의 지배자였던 자신의 옛 위상을 보여주려던 그녀의 승마는 결국 흑인들에 의해 말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흑인들의 삶과 인권을 짓밟았던 가해자인 그녀는 억압되었던 흑인들의 증오에 나름대로 맞선다. 그녀의 방식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 흑인들과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빼앗은 흑인들의 삶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지배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아네트의 이런 노력은 앙투아네트와 피에르를 위해 그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 사상에 갇혀 있는 아네트에게 영국 백인 사회의 진입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현실을 벗어나려는 아네트의 이런 방식은 가족인 앙투아네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아네트의 부재는 어린 앙투아네트의 고독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아네트는 고립되어 있는 앙투아네트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안정감을 제공받지 못한 앙투아네트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맞물려 그녀의 정체성과 자아를 제대로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평소 아네트는 따뜻한 모정을 갈구하는 앙투아네트에게 차가운 모습을 보인 적이 많다. 앙투아네트가 어머니인 아네트에게 느끼는 감정은 짜증을 내며 자신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아네트의 차가운 성격은 앙투아네트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앙투아네트는 아네트에게 부채질을 해주며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다. 아네트의 이런 태도는 앙투아네트가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홍성주에 따르면, 앙투아네트가 "정체성의 혼란과 미완성에서 오는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존재가 주는 실제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감을 위협받기 때문이다"(223). 아네트에게 고통받는 앙투아네트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아들 피에르의 존재이다. 아네트가 앙투아네트에게 이러한 결핍된 모성애를 보이는 이유는 가부장적 사회가 그녀에게 끼친 영향 때문이다.

가부장적 사회는 남편이 없는 부인의 권리를 아버지 대신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에게 이전한다. 아네트에게 피에르는 장애를 가진 아이이기 이전에 아버지 대신 그녀의 권리를 가진 집안의 장자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네트에게 피에르가 가진 장자의 위치는 견고하다. 게다가 피에르가 장애마저 가지고 있으므로 아네트가 가진 모성애는 앙투아네트가 아닌 피에르에게 대부분 발현된다. 아들인 피에르는 장애로 인해 가문을 제대로 이어받기 어렵다. 가문을 대표하는 남성이 부재한 가운데 아네트는 남편 대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네트는 의지할 곳 없는 여자로서의 불안감과 백인으로서의 버릴 수 없는 허영심을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아네트는 결국 피에르를 대신하여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영국에서 유입된 백인 메이슨과 재혼한다.

같은 크리올에게 거부당하고 흑인의 멸시를 받는 크리올 아네트가 새로운 지배세력 메이슨과 결합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이념을 담고 있다. 아네트는 영국 백인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백인의 정체성과 지위를 예전처럼 견고하게 만든다. 또한 메이슨이 가진 경제력은 아네트와 그녀의 두 자녀가 다시 예전처럼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유승은 아네트의 결혼을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백인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여 정신적 안정을 취하려는 행위”(133)로 규정한다.

프랑스계 크리올 아네트와 영국 백인인 메이슨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사람들은 고립되었던 아네트가 영국의 백인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을 의아해한다. 순수한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네트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몰락한 크리올 여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네트의 재혼에는 메이슨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메이슨은 아네트와의 결혼을 통해 아네트가 가진 땅과 저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자메이카에서 농장을 운영하여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자메이카의 대농장은 새로 유입된 백인 자산가들에게 헐값에 팔려 백인 자산가들의 재산을 늘려준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들의 결혼은 흑인들의 증오를 발생시킨다.

아네트는 흑인들의 적개심을 피해 쿨리브리를 떠날 것을 남편인 메이슨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메이슨의 목적은 아네트와 가족의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다. 쿨리브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가 아네트와 결혼한 목적을 버리는 행위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인 아네트의 목소리는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갖지 못한다. 대농장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하려던 메이슨은 아네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백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메이슨은 흑인들을 “파리 한 마리도 죽일 능력”(18)이 없는 아이로 치부한다. 그는 자메이카의 흑인들이 크리올과 백인을 향해 적개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메이슨은 노예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흑인을 여전히 백인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메이슨은 새로 고용한 흑인 시녀를 의식하지 않고 노동자를 수입해 오려는 그의 계획을 발설한다. 백인인 메이슨의 관점에서 자메이카의 흑인들은 게을러서 일을 제대로 맡길 수 없는 존재이다. 자메이카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흑인들은 제국주의로 인해 땅과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진 문화와 자유는 백인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유린당했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나아질 것 없는 삶을 사는 흑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에게 또 다른 노동자 세력의 유입은 반갑지 않은 일이다. 자메이카의 흑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메이슨의 계획은 쿨리브리 저택이 불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아네트는 불이 난 피에르의 방에서 자신이 다치면서까지 피에르를 구해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피에르를 위험에 처하게 한 메이슨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아네트가 그녀의 분노를 담아 메이슨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모습은 앙투아네트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아네트는 더 이상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며 남편의 말을 따르는 이전의 여성이 아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의 행동으로 그녀의 집과 그녀의 아들이 해를 입게 된 순간부터 아네트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

아네트는 불에 타고 있는 쿨리브리 저택에서 홀로 빠져나오지 못한 앵무새 코코(Coco)를 구하기 위해 메이슨과 다시 마찰을 빚는다. 메이슨은 위험한 상황에서 앵무새를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아네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네트는 메이슨의 질책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몸을 고양이처럼 이리저리 비틀고 악문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22) 메이슨에게 대항한다. 아네트의 이런 행동은 남편으로서 메이슨이 갖는 권위를 거부하는 아네트의 의지를 담고 있다.

코코는 메이슨이 날지 못하도록 날개를 잘라버린 앵무새이다. 날개를 이용하여 불길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날개가 없는 코코는 도망가지도 못한다. 날개를 자른 메이슨은 백인이 가진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재단했던 가해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메이슨에 의해 날개가 잘린 코코는 백인의 가치에 폄하당하고 희생당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는 백인 우월의식을 기반으로 다른 문화와 가치를 메이슨이 앵무새의 날개를 자른 것처럼 제한하고 억압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결혼으로 심화된 성과 인종 갈등

리스는 주인공 앙투아네트의 결혼 생활을 통해 크리올 여성이 겪는 성적인 갈등과 인종적인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손영희의 말대로, 앙투아네트의 결혼은 “가부장제의 지배 뿐 아니라 인종적 차별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받는다(58). 그녀의 결혼은 여성으로서 그녀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는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백인 크리올로서 제국주의에서 파생된 인종적인 문제도 함께 보여준다. 앙투아네트의 결혼은 그녀가 가진 것들을 상실하게 하며 성과 인종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번 장에서는 백인 남편과 앙투아네트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난 제국주의와 가부장적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작품 속에서 앙투아네트의 남편의 이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품의 모티브인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통해 남편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 『제인 에어』의 버싸를 앙투아네트로 대입하면 남편의 이름이 로체스터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리스는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의 갈등을 묘사함으로써 『제인 에어』의 손필드(Thornfield) 저택의 화재 원인을 암시한다. 또한 앙투아네트의 결혼 생활을 로체스터의 시점으로 서술함으로써 그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로체스터의 행동에 담긴 그의 진심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로체스터는 다정한 행동 뒤에 냉정하고 계산적인 그의 본심을 숨기고 있다. 그는 앙투아네트를 향한 어떠한 호감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와 결혼을 한다.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를 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가부장적 사회의 장자 우선주의 때문이다. 그의 결혼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불안정한 차남인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방안이다.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의 결혼은 서로간의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화합이 아닌 계산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본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앙투아네트와 결혼하기 위해 연기한다. 그래서 로체스터는 자신의 결혼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앙투아네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위선적인 태도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로체스터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그의 행동과 다른 숨겨진 본심이 드러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아버님 보십시오. 삼만 파운드의 돈은 질문도 조건도 없이 제게 지불되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어떤 보호 조건도 만들지 않은 채. 이제 저는 꽤 괜찮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님이나 아버님이 사랑하시는 형님께 수치스러운 인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교활하고 치사한 전술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의 영혼을 팔았군요. 아니 아버님이 파셨다고 해야겠지요.
>
> Dear Father. The thirty thousand pounds have been paid to me without question or condition. No provision made for her (that must be seen to). I have a modest competence now. I will never be disgrace to you or to my brother the son you love. No begging letters, no mean requests. None of the furtive shabby manoeuvres of a younger son. I have sold my soul or you have sold it... (42)

그의 관심은 앙투아네트가 가지고 있는 삼만 파운드의 돈과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 있다. 로체스터는 영국 백인이지만 차남이라는 이유로 가문의 장남에 비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이 거의 없다. 로체스터는 장자인 형님을 지칭하면서 굳이 “아버님이 사랑하시는 형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이것은 장자를 우선시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 그는 이제 “수치스럽지 않은 인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보인다. 이 표현은 기존에 로체스터가 가져왔던 스스로의 열등감을 포장하려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결혼을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이와 같은 결정에 자조적인 태도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그는 앙투아네트의 지참금인 삼만 파운드의 돈을 소유하게 되지만 자신의 태도를 “교활하고 치사한 전술”이라 일컫는다. 또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아버지가 결정한 앙투아네트와의 결혼에 대해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영국인 로체스터는 식민지 백인 여성인 앙투아네트와의 결혼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갖는다. 반면 앙투아네트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 당한다. 제국주의의 가부장적인 영국 법은 백인 남성에게 여성이 가진 기존의 경제력과 권한을 복속시킨다. 가부장적 사회의 결혼 제도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법적으로 인정한다. 가부장제 법에 의해 앙투아네트에게 상속된 삼만 파운드의 돈은 남편의 소유가 됨으로써 그녀는 경제력을 상실한다.

그녀는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모든 권한이 일임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재산이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영국 법에 의문을 갖지도 않는다. 가부장제의 남성 우월 사상이 앙투아네트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만든 것이다. 앙투아네트의 남편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이용하여 그녀가 가진 경제력부터 억압한다. 앙투아네트는 권리를 제한 당하는 여성으로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겪는다.

앙투아네트의 재산 상실은 가부장제의 갈등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요소와도 연관 될 수 있다. 로체스터와 앙투아네트의 결혼은 제국주의의 영국 남성과 식민지 백인 여성의 결합이다. 김영미와 이명호의 말대로 “유럽 제국에 있어 식민지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장소”(103)로 보면 이 둘의 결혼은 유럽 제국과 식민지로 대입해 볼 수 있다. 앙투아네트는 식민지 여성으로서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영국 남성 로체스터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다. 이러한 결과는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가 제국주의로 인한 인종 문제 역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앙투아네트는 지배 계층인 백인에도 속하지 못하고 피지배계층인 흑인에도 속하지 못하는 크리올이다. 제국주의에 물든 백인 남편 로체스터는 식민지에서 자란 그녀를 같은 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식민지의 백인 크리올 앙투아네트와 백인 남성과의 결혼은 제국주의에서 파생되는 인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로체스터는 결혼한 이후에도 백인 남성인 자신과 크리올 여성인 앙투아네트를 계속 구분한다. 그는 그랑부아(Granbois)의 자연과 식민지의 문화를 낯설어하고 거부한다.

이러한 로체스터가 그랑부아에서 유일하게 안식처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는 공간은 메이슨이 사용하던 방이다. 메이슨은 영국에서 식민지로 온 백인 남성이라는 점에서 로체스터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로체스터는 메이슨에게서 동질감을 느낀다. 그는 메이슨의 방을 크리올 또는 흑인과 섞일 수 없는 자신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는 앙투아네트에게 친절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하면서 지배자인 자신과 크리올인 앙투아네트의 환경을 분리한다.

로체스터는 제국주의의 가치관과 문화를 기준으로 앙투아네트를 평가하며 인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인 갈등을 드러낸다. 그는 아내의 눈을 “길게 찢어진, 검은 동자의 눈. 서글픈 이방인의 눈”(40)으로 묘사한다. 앙투아네트의 혈통이 순수 백인이 맞는지 의심하기도 한다. 로체스터는 그녀가 “영국 순수 혈통의 크리올이라지만, 크리올을 영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40)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국주의 관점에 따라 로체스터는 지역과 문화가 다른 크리올 앙투아네트를 자신과 다른 인종으로 규정한다.

제국주의의 문화를 가진 로체스터는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앙투아네트의 문화를 저급하다고 인식한다. 그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연을 낯설어 하고 신혼지인 그랑부아에 대해 “모든 것이 지나치다”(42)고 평가한다. 또한 그랑부아의 흑인들이 사용하는 파투아(Patois)를 천박하다고 표현함으로써 흑인들이 열등하다는 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로체스터의 이러한 생각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이후에도 제국주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백인의 의식을 보여준다. 제국주의는 백인 우월 중심 사상으로 흑인과 크리올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만든다. 로체스터는 그의 결혼을 축하하며 그를 반기는 화환을 벗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렸지만 무심히 밟아 버리고 만다. 이는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가 크리올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화와 생각, 관념들을 밟아 버리는 행위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흑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승마용 스커트를 걷어 올린 채 뛰어가는 앙투아네트의 모습을 “비판적인 눈”(40)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광활한 싸가소 바다』의 또 다른 해석: 진 리스의 로체스터 축소전략과 그 의미」에서 윤정길은 로체스터의 시선으로 볼 때 앙투아네트의 행동은 “귀부인의 몸가짐으로는 걸맞지 않는 행동”(453)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흑인들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행위에 반감을 드러낸다. 로체스터의 관점에서 저급한 흑인들과 어울리는 앙투아네트는 백인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결국 앙투아네트의 행동은 로체스터가 그녀가 가진 백인의 혈통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녀의 가치관과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기는 로체스터의 태도는 그가 가진 제국주의 시각에서 비롯된다.

로체스터와 앙투아네트의 신혼 생활에서도 제국주의와 가부장적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크리올 여성으로서 가진 개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백인 남성인 그의 기준에 맞추도록 유도한다. 그는 흑인 여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과 앙투아네트가 머리에 바르는 향을 싫어한다.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가 향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에 바르는 향의 양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그녀의 문화를 멀리하게 만든다. 또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그녀는 아내로서 남편의 기쁨을 가장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즐겨 입고 똑같은 옷을 하나 더 맞추겠다고 말하며 로체스터의 기분을 살핀다. 그녀는 남편의 취향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문화와 습관을 버리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앙투아네트는 결혼 생활이 주는 불합리함을 깨닫지 못한 채 행복하다고 믿는 지금의 순간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기에 이른다.

로체스터에게 앙투아네트가 품고 있는 감정은 아내가 남편에게 갖는 애정을 넘어선다. 그녀의 삶은 로체스터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삶과 죽음의 여부까지 맡겨버린다. 앙투아네트의 태도를 통해 그녀가 남편에게 얼마나 귀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거짓된 말과 태도로 앙투아네트의 마음을 얻는다. 그는 진심이 없는 달콤한 말을 아내에게 건넴으로써 그녀가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위선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의 진심을 끝없이 기만한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를 기만하면서도 점차 그녀에게 성적으로 매료된다. 또 식민지의 자연이 주는 매력에 동화되기도 한다. 그는 식민지의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한다. 로체스터는 “점차 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었다”(57)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백인을 우월하게 인식하는 제국주의와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 사회의 문화를 가진 인물이다. 자신이 배운 관념대로 앙투아네트와 식민지 사람들을 평가하고 선을 긋는 것에 익숙하다. 제국주의와 가부장적 문화를 대표하는 로체스터에게 자신의 식민지 인식 변화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는 앙투아네트의 배다른 남매인 대니얼(Daniel)의 편지를 받는 것을 계기로 자신의 의식을 재정립한다. 대니얼의 편지는 로체스터가 크리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인시켜준다.

>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겠지요? 그럼 그 악마 같은 인간 리처드에게 세 가지만 물어보시고 그가 대답하도록 만들어보세요. 선생의 장모가 사납게 날뛰는 광녀로 감금되었나? 그리고 광기 이외에도 더 기막힌 결점이 있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하느님께서 은혜롭게도 어린 나이에 데려가셨지만, 앙투아네타의 남동생이 날 때부터 백치였나?
> 선생의 신부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제 엄마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나?
>
> Still you don't believe me? Then ask that devil of a man Richard Mason three questions and make him answer you. Is your wife's mother shut away, a raging lunatic and worse besides? Dead or alive I do not know.
> Was your wife's brother an idiot form birth, though God mercifully take him early on?
> Is your wife herself going the same way as her mother and all knowing it? (61)

대니얼의 편지는 앙투아네트가 가진 크리올의 피에 광기가 흐른다고 말한다. 앙투아네트의 집안에 있었던 불행의 원인이 그녀의 가계에 흐르는 크리올의 피에 있다는 의혹을 던진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가진 혈통을 모함하는 대니얼의 편지를 받고도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아마 나는 이런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62)고 생각한다. 로체스터는 대니얼의 편지를 한순간 나약해진 자신을 독려하는 도구로 받아들인다. 앙투아네트가 어머니의 인생을 닮아 갈 것이라고 믿는 그는 결국 어머니와 연관된 그녀의 이름을 빼앗는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버싸’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내를 지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그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잃는다. 그녀는 로체스터의 의도대로 어머니의 이름과 멀어짐으로써 어머니와 단절된다. 로체스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에게 주는 권한을 이용하여 앙투아네트를 무너뜨린다. 김영미와 이명호의 말대로, “그가 아내를 파괴시키는 과정은 그녀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난다”(111).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가 그녀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를 수긍하고 받아들인다. 그녀는 자신이 당하는 부당함을 토로하지 않는다.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가 휘두른 정신적 폭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로체스터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크리올 여성인 자신을 부정하는 로체스터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이는 앙투아네트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진 결과이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약자로서 지배자에게 온전히 복종한다. 본심을 드러낸 로체스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앙투아네트는 크리스토핀에게 도움을 청한다.

흑인 유모 크리스토핀은 거듭되는 앙투아네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의 마음을 얻는 수단으로 금지된 주술인 오베아(Obeah)를 사용한다. 오베아는 흑인들의 토속 신앙으로 일반적으로 백인들이 경계하는 주술이다. 반면 앙투아네트는 식민지에서 태어나 흑인들의 문화를 접한 크리올로서 오베아를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 그녀는 백인들이 탄압하는 주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앙투아네트가 행한 주술은 로체스터를 하룻밤 유혹하는데 성공한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적 무기를 이용하는 그녀는 비참한 여성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앙투아네트가 사용한 성적 무기는 오히려 로체스터가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혐오를 증가시킨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와 밤을 보낸 후 '산 채로 매장되는 꿈'(87)을 꾸며 일어난다. 그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머리카락이다. 앙투아네트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은 그의 숨을 틀어막는 요인이 된다. 이제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가진 모든 것을 혐오한다. 그녀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녀의 화장대는 그 자체로 혐오스러운 물건이다. 그는 앙투아네트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고 생각한다. 로체스터는 자신을 해치려 한 크리올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느낀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 그의 계속된 구역질은 지난 밤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것에 혐오를 느낀 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로체스터를 매료시킨 앙투아네트의 성적 매력은 그에게 파멸시켜야 할 요인으로 다가온다.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의 성적 매력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대니얼의 두 번째 편지에 있다. 대니얼은 로체스터를 만나 앙투아네트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규정한다. 앙투아네트가 가진 외모와 성적 매력이 부도덕한 것으로 로체스터가 여기도록 만든다. 로체스터가 가지고 있는 백인의 자존심을 건드림으로써 그가 앙투아네트에게 매료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를 정갈하지 못한 여성으로 치부한다. 대니얼은 혐오와 분노를 느끼고 돌아서는 로체스터에게 분란의 싹을 심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가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 가시면 안 되지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 입을 다물어주기를 바라시지요? 앙투아네타가 처음 사귄 남자가 샌디랍니다. 사람들이 선생의 신부에 대해 잘도 속였지요. 아마 그 애가 선생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듣기 좋은 말들을 하겠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오. 제 엄마도 똑같았어요. 이제 겨우 어린애 티를 벗었지만 제 엄마보다 더 거짓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할 때 사람들이 웃어대는 걸 못 들으셨다니 선생이 혹 귀머거리가 아닌지 모르겠군요." […] "나의 사랑을 당신의 아내, 내 여동생에게 전해 주시지!" 그는 내 등에다 대고 독을 뱉어내듯 소리 질렀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 키스한 첫 남자가 당신인 줄 알아? 아름다고 부드러운 피부, 아름다운 얼굴색. 나처럼 노랗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 우리는 남매라네."

'No you don't go before I tell you the last thing. You want me to shut me mouth about what I know. She start with Sandi. They fool you well about that girl. She look you straight in the eye and talk sweet talk - and it's lies she tell you. Lies. Her mother was so. They say she worse than her mother, and she hardly more than a child. Must be you deaf you don't hear people laughing when you marry her.' […] 'Give my love to your wife - my sister,' he called after me venomously. 'You are not the first to kiss her pretty face. Pretty face, soft skin, pretty colour - not yellow like me. But my sister just the same ...' (80)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 여성의 성적인 순결이다. 대니얼은 앙투아네트의 첫 남자가 로체스터가 아니라고 말한다. 앙투아네트가 가진 외모와 성적 매력을 다른 남자가 접했다는 것은 로체스터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로체스터는 뿌리 깊은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며 앙투아네트의 백인 혈통을 의심해 왔다. 대니얼은 노란 피부의 자신과 앙투아네트가 남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로체스터가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적 틀 안에서 앙투아네트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로체스터가 앙투아네트를 파멸시키는 것에 당위성을 제공한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그녀와 동일시하며 사랑하는 장소를 훼손한다. 강서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말대로 그랑부아는 앙투아네트의 "어린 시절 쿨리브리의 대체 장소이다"(17). 불에 타버린 쿨리브리가 예전에 주었던 안정감을 그녀는 그랑부아에서 느낀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의 공간에서 그녀를 무시하는 흑인 소녀와 보란 듯이 관계를 맺는다. 이로 인해 앙투아네트가 그랑부아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과 의미들은 더럽혀진다.

> 당신이 내게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여자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계집애 문제가 아니지요. 나는 이 장소를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당신은 이 장소를 내가 증오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아세요?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 나간다 해도, 나는 이 장소를 끝까지 품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나의 장소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여기는 그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어떤 장소 중 하나가 된 거라고요. 전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들과 여기에서 발생한 일을 비교하면 과거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증오하듯 이제 나는 이 장소를 증오하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꼭 보여 주겠어요.
>
> Do you know what you've done to me? It's not the girl, not the girl. But I loved this place and you have made it into a place I hate. I used to think that if everything else went out of my life I would still have this, and now you have spoilt it. It's just somewhere else where I have been unhappy, and all the other things are nothing to what has happened here. I hate it now like I hate you and before I die I will show you how much I hate you. (94-5)

김영미와 이명호는 로체스터의 장소 훼손이 "단지 여자로서의 자존심뿐 아니라,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장소를 더럽히는 의미"(112)가 된다고 말한다. 로체스터는 같은 여성인 아멜리(Amélie)를 이용해 앙투아네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 또한 그는 그녀가 행복을 느끼는 공간을 증오를 느끼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제 앙투아네트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모두 사라진다. 쿨리브리는 불타버리고, 그랑부아는 더럽혀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를 철저하게 짓밟았으면서도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크리스토핀과의 대화에서 앙투아네트가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로체스터의 분노는 앙투아네트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부장적인 그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에게 있어 앙투아네트는 그가 가진 소유물에 불과하다. 자신 외에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에게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심어준다.

로체스터는 크리올 여성과 결혼하고, 백인의 나라 영국을 떠나 그랑부아에 머무르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국 백인의 자부심을 가진 로체스터에게 그랑부아의 자연은 비문명적이고 낙후된 공간이다. 그러나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본인이 지배하고 정복할 수 없는 광범위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의 부인인 앙투아네트 역시 로체스터가 온전하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랑부아와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열등감을 증폭시키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 의해 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인의 우월성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진옥은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로체스터의 두려움에 대해 “자신의 공포나 불안한 감정을 피지배자 아내의 잘못으로 여겨 그녀를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32). 로체스터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앙투아네트를 유린하며 표출한다. 앙투아네트가 가지고 있는 크리올의 특성과 식민지 땅은 백인 우월주의에 젖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여성 인물들의 결말

피부색과 출신 지역에 따라 사람의 우열을 가리게 하는 제국주의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인종 갈등을 양산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피부색을 가진 백인과 크리올 사이에도 융화될 수 없는 벽을 만든다. 사람이 가진 성에 따라 우열을 구분지은 가부장제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이러한 인종과 성적 갈등에서 흑인과 크리올 여성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도가 근본적으로 볼 때 남성 우월주의를 근간"(윤정길, 「19세기」 95)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네트와 크리스토핀, 그리고 앙투아네트는 남성 우월주의를 대표하는 백인 남성 메이슨과 로체스터로부터 억압당하는 삶을 산다. 결국 아네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렸으며, 크리스토핀은 백인 사회의 강압에 의해 터전을 떠나게 된다.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로체스터의 속박과 혼란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세 여성 인물들의 이러한 결말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도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재확인 시켜준다. "남성을 위한 문화, 남성을 위한 법, 남성의 언어에 의해 구축된 제도와 관습과 규범이 정형화한 것에 도전한다고 생각되거나 체제의 지속을 저해하는 힘으로 간주될 때 그 힘은 무참히 거세되었다"(윤정길, 「19세기」 95).

쿨리브리 저택의 방화 사건으로 위험에 처한 피에르의 상황은 아네트를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부인으로 변화시킨다. 아네트는 메이슨이 가진 남성의 권위를 비난하며 적의를 드러낸다. "내게 손대지 말라니까. 내게 다시 손대기만 해봐. 죽여 버리겠어, 이 겁쟁이 위선자야. 내가 당신을 죽여 버릴 거야"(25). 아네트의 변화는 여성을 권위적으로 다스리던 남성의 사고와 행동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의 뜻에 순종하였던 아네트가 얻은 대가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네트는 메이슨에게 환멸을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다.

피에르가 죽은 뒤 메이슨은 아네트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흑인 감호원들이 있는 요양원으로 보낸다. 메이슨의 태도는 가부장제의 남성이 부인에게 가진 관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부인은 남편을 비난하고 자신의 마음과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고상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메이슨의 관점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아네트는 부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을 상실한 존재이다. 메이슨과 춤을 추며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아네트는 그녀가 가진 생기를 모두 잃는다. 아네트를 그리워했던 앙투아네트조차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에 혼란을 느낀다. 아네트는 앙투아네트를 확인하고 꼭 안아주지만 피에르의 죽음을 재인식하는 순간 앙투아네트를 거부한다. 딸을 밀어뜨리고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네트를 흑인 감호자들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다.

메이슨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어대는 아네트를 포기한다. 피에르를 잃은 아네트의 지금의 모습에서 과거의 아네트가 가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성을 상실한 아네트의 모습은 그녀가 가진 자녀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가부장제가 그녀에게 심어놓은 관념을 보여준다. 아네트에게 있어서 피에르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핏줄이 아니다. 장자인 피에르는 그녀에게 그녀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사라지면서 아네트는 생명력 없고 무기력한 삶을 보낼 뿐 아니라 감호자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하기까지 이른다.

> 사람들이 마님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아들을 잃자 마님은 잠깐 동안 실성했었지요. 그런데 그 고통 받는 사람을 가두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마님보고 미쳤다 미쳤다 했지요. 사람들은 마치 마님이 미친 사람인 듯 행동했어요. 온갖 질문에 질문을 퍼부어대 정신을 못 차리게 했지요.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도 없고. 메이슨 씨는 마님을 버렸지요. 마님을 혼자 두고 떠나버렸어요. 제가 마님을 보고 싶다 해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님을 뵈려고 노력을 했게요. 그러나 전혀 못 만나게 하더군요. 심지어 앙투아네트가 제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마님이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인생을 포기한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관심을 버렸으니까요. 흑인 감호자가 원할 때마다 마님을 겁탈했고, 그자의 아내가 여기저기 입을 놀렸어요. 그 감호자뿐 아니라 다른 흑인들도 마님을 마음대로 겁탈했으니. 아아!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 They drive her to it. When she lose her son she lose herself for a while and they shut her away. They tell her she is mad, they act like she is mad. Question, question. But no kind word, no friends, and her husban' he go off, he leave her. They won't let me see her. I try, bu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no. They won't let Antoinette see her. In the end - mad I don't know - she give up, she care for nothing. That man who is in charge of her he take her whenever he want and his woman talk. That man, and others. Then they have her. Ah there is no God. (101)

아네트는 피에르의 위험과 죽음으로 가부장적인 제도 하의 여성이 강요당한 덕목에 반기를 든 적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사상을 따르도록 세뇌시킨 사회를 이기지 못한다. 장자 우월 중심 사고와 장애를 가진 피에르에 대한 모성애는 아네트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아네트는 흑인 감호자들에게 겁탈을 당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흰 피부를 가진 백인 여성이 까만 피부를 가진 흑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강제로 갖는다는 것은 학대 이외에도 다른 의미를 지닌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시대에서 백인은 흑인을 억압하며 권력을 누리는 계층이다. 노예 해방령이 공표된 이후에도 과거 식민지의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인 크리올인 아네트가 흑인 남성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백인 사회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박윤기는 “이는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의 자메이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기”(84)라고 말한다.

과거 백인 남성 노예주들은 흑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박윤기에 따르면, 백인 남성의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었던 것은 “제국주의적 질서와 가부장적 권위가 인정되던 시기”(83)의 특성 때문이다. 반면 아네트는 흑인 남성 감호자에게 성적으로 유린되는 백인 여성이다. 기존의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당해왔던 성적 학대의 양상이 주체자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백인과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개념을 떠나 성적인 착취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양상으로 반복된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성적인 폭력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성적인 차별성을 드러낸다. 아네트의 삶에서 제국주의와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롯된 갈등은 물론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폭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삶과 의식을 포기한 아네트와 달리 크리스토핀은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다. 크리스토핀은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은 존재인 흑인 여성으로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네트의 결혼 선물 중 하나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까만 얼굴을 가진 크리스토핀의 외양은 그녀의 굳은 성격을 대변해준다. 그녀는 그녀의 출신지인 마르티니크 스타일을 고수하며 그녀의 문화와 언어를 고집한다. 백인들의 시선이나 다른 흑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항상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다. 크리스토핀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노예해방령이 선고되고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크리스토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꿰뚫어본다. 노예제 시절 흑인들을 억눌렀던 백인 세력은 노예제 폐지 이후 그들이 가진 자본력으로 여전히 우위에 서있다. 자메이카에 새로 유입된 백인들은 자메이카의 토착민이 가진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자메이카의 흑인들이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핀은 이에 대한 그녀의 불만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크리스토핀은 가부장적인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덕목을 거부하며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녀는 제일 하급 집단에 속하는 흑인 여성 노예로서 앙투아네트 가문을 섬겨오면서도 크리스토핀 그녀만의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백인과 남성의 지배 집단에게 예속되지 않는 혼을 보여준다. 크리스토핀은 가부장적인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순결과 복종의 덕목을 거부한다. 그녀가 살아온 인생은 앙투아네트에게 그녀가 유모로서 하는 조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크리스토핀이 어깨 너머로 침을 탁 뱉었다.
> “여자들이란 게, 얼굴색을 막론하고 모두 바보들이야. 나는 자식을 셋 두었지요. 둘은 죽었지만. 그 애들은 모두 애비가 다르답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하느님께 정말 감사해야지. 내 돈은 내가 챙겨요. 나는 내 돈을 쓸모없는 남자에게 절대 주지 않지요.”
>
> She spat over her shoulder. 'All women, all colours, nothing but fools. Three children I have. One living in this world, each one a different father, but no husband, I thank my God. I keep my money. I don't give it to no worthless man.' (6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남편인 로체스터의 사랑과 관심 없이 살 수 없는 앙투아네트는 유모인 크리스토핀에게 의지한다. 크리스토핀은 앙투아네트에게 남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여성이 가져야 했던 가부장 시대의 미덕을 거부하도록 조언한다. 크리스토핀의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는 기존 사회의 통념과 거리가 멀다. 이현지와 강문구는 크리스토핀을 "남편이 없이도 정신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히 지닌 여성"(353)으로 설명한다. 크리스토핀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치부하는 가부장 제도를 거부한다. 또한 백인 여성 앙투아네트에게 조언을 함으로써 흑인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본 제국주의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리스토핀이 가진 경제력과 곧은 태도는 그녀가 앙투아네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손영희의 말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백인의 돈과 교환하지 않는 크리스토핀의 경제적 독립"은 "로체스터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선사"하는 것이다(62). 크리스토핀은 백인 지배 세력인 로체스터로부터 앙투아네트를 보호하며 앙투아네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가 자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며 자신을 인형 취급하는 것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한다. 크리스토핀은 로체스터의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로체스터와 대립한다.

로체스터는 크리스토핀이 자신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자신의 행위를 조목조목 반박하자 위기의식을 느낀다. 윤진구에 따르면 크리스토핀을 통해 로체스터와 앙투아네트의 "밝혀지지 않은 둘 사이의 왜곡된 결혼생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다"(247). 따라서 로체스터는 제국주의가 부여한 백인의 지위와 가부장제가 허락한 가장의 권위를 지키려고 한다. 그는 크리스토핀이 가진 흑인의 주술 문화 오베아를 경계하는 백인 사회의 의식을 이용한다. 로체스터는 크리스토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집정관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받아둔다. 그리고 로체스터가 가진 백인 남성의 권위에 대항하는 크리스토핀을 앙투아네트의 주변에서 제거하기에 이른다.

> "크리스토핀, 자메이카에서 몇 년을 살았으니 프레이저 씨를 알겠지? 스패니시 타운의 집정관을 지내신 프레이저 씨 말이야. 내가 자네에 대해서 그분께 편지를 쓴 적이 있었지. 그 분이 뭐라고 답장을 쓰셨는지 들어보겠나?"
> 그녀가 나를 응시했다. 나는 프레이저 씨가 쓴 편지의 끝 부분을 큰 소리로 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었다.
그래서 선생이 머물고 계신 지역의 백인 경찰 힐 씨에게 조심스러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만일 그녀가 그 동네에 살면서 또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힐 씨에게 곧 연락해 주십시오. 힐 씨가 즉각 경찰 두어 명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Christophine,' I said, 'you lived in Jamaica for years, and you know Mr Fraser, the Spanish Town magistrate, well. I wrote to him about you. Would you like to hear what he answered?' She stared at me. I read the end of Fraser's letter aloud: ' I have written very discreetly to Hill, the white inspector of police in your town. If she lives near you and gets up to any of her nonsense let him know at once. He'll send a couple of policemen up to your place and she won't get off lightly this time . . . (103)

크리스토핀은 그녀를 쫓아내려는 로체스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에게 머무를 자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내세운다. 크리스토핀의 말대로 그녀의 터전은 “식민지가 아니라 자유국가”(103)이고, 그녀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성”(103)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인 여성인 그녀에게는 표면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뿐 백인 사회는 여전히 그녀를 억압하고 구속한다. 저항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크리스토핀은 결국 로체스터의 억압에 굴복하게 된다.

크리스토핀이 로체스터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녀가 행한 오베아 의식 때문이다. 앙투아네트를 돕기 위해 그녀가 벌인 오베아 의식은 앙투아네트를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백인들은 피지배자들의 문화인 오베아가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인식한다. 로체스터 역시 크리스토핀이 행한 오베아의 의도와 과정을 그가 가진 백인의 선입관 안에서 판단한다. 오베아에 대한 백인들의 독단은 크리스토핀에게 죄목을 적용하여 크리스토핀이 그녀의 터전과 가족을 떠나도록 억제한다.

보호자였던 크리스토핀 마저 잃게 된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에 의해 영국의 손필드 저택에 감금된다. 앙투아네트의 손필드 저택 감금은 그녀의 어머니인 아네트가 메이슨에 의해 요양원에 갇힌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아네트는 메이슨에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표출하고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에게 같은 행동을 보인다.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메이슨과 로체스터에게 부인들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19세기가 요구하는 여인상이 아닌 여인들, 그리하여 가정의 평화와 성적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여인들은 애초에 억압”(윤정길, 「19세기」 94)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를 영국으로 데려와 그레이스 풀(Grace Poole)이라는 여자를 고용하여 앙투아네트를 돌보게 한다. 그리고 그는 그레이스 풀에게 두 배 이상의 월급을 제안하여 앙투아네트에 대한 소문이 나는 것을 막는다. 영국은 로체스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랑부아와 다르게 그의 지배력이 닿는 그의 영역이다. 따라서 앙투아네트가 갇힌 영국의 손필드 저택은 그녀에게 춥고 낯설기만 한 공간이다. 앙투아네트는 계속 추위에 떨며 자신이 갇힌 이유와 앞으로의 대응을 생각한다.

> 처음 여기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하루나 이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정도 머무는 줄 알았다. 내가 그를 보게 되어 말할 기회가 생기면, 나는 뱀처럼 현명하고 비둘기처럼 양순하게 굴리라고 마음먹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무조건 드릴게요.”라고 말해야지. “저를 집으로 보내만 주신다면, 다시는 당신을 골치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
> When I first came I thought it would be for a day, two days, a week perhaps. I thought that when I saw him and spoke to him I would be wise as serpents, harmless as doves. 'I give you all I have freely,' I would say, 'and I will not trouble you again if you will let me go.' But he never came. (116)

앙투아네트는 더 이상 연약하고 수동적인 여자로서 로체스터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다. 앙투아네트가 바라는 것은 그녀의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로체스터의 선심을 얻어 그녀의 자유를 찾기 위해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녀는 추위와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꺼이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기로 다짐한다. 앙투아네트의 태도 변화는 그녀가 가진 목소리와 힘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힘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없는 여성의 분노 표출과 남성의 권위에 대한 반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자신의 공간을 더럽혔던 로체스터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증오를 보였던 앙투아네트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레이스 풀의 묘사에 의하면 앙투아네트는 아직도 혼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레이스 풀에게 손필드 저택은 "크고 안전해서 여성에게 어둡고 잔인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처"(116)이다. "자기만의 어둠 속"(116)에 살고 있는 앙투아네트를 제외하면 손필드 저택의 여인들은 저택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다른 여인들과 달리 앙투아네트에게 손필드 저택은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공간이다. 손필드 저택에 대한 앙투아네트의 인식에서 영국의 여인들과는 사뭇 다른 그녀의 야생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그랑부아와 대비되는 손필드 저택에서 앙투아네트는 그녀가 가진 외모의 매력을 잃어간다. 메이슨의 아들이자 그녀의 양 오빠인 리처드(Richard)마저도 앙투아네트를 알아보지 못한다.

앙투아네트는 저택에 찾아 온 리처드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법에 따라 리처드는 더 이상 앙투아네트를 보호할 수 있는 명목과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리처드는 남편인 로체스터와 부인인 앙투아네트 사이의 일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앙투아네트는 "법적으로"(119)라는 말에 크게 분노하여 칼을 휘두르고 물어뜯으며 분노를 표출한다. 가부장제는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여성이 철저하게 수동적인 인간이 되도록 만든다. 앙투아네트는 아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구속당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녀의 분노는 사회의 법과 그 법을 만든 남성들을 향하고 있다.

앙투아네트는 바닥에 흐트러진 자신의 빨간 드레스를 보며 붉은 화염의 모습을 떠올린다. 빨간 드레스에서 연상되는 화염의 모습을 보며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앙투아네트는 꿈 속에서 불이 난 손필드 저택과 붉은 하늘 속에서 자유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앙투아네트는 꿈 속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버사라고 부르는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거부한다. 유승에 따르면 앙투아네트의 거절을 통해 독자들은 "서구 우월주의에 대한 반발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144).

> 나를 증오하는 사나이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버사! 버사! 바람이 내 머리에 닿으니 머리칼은 마치 날개처럼 물결치며 펄럭였다. 내가 만일 저 아래 단단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돌바닥으로 뛰어내리면 내 머리칼이 날개가 되어 나를 둥둥 뜨게 하겠지.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지붕의 끝자락 너머로 눈을 돌리니 쿨리브리에서 수영하던 작은 강이 보였고, 거기 티아가 서 있었다. 티아가 나를 보고 손짓을 했다. 내가 주저주저하자 티아가 웃었다. 티아가 나를 향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무서워서 그래? 다시 나는 그 사나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버사! 버사! 이 모든 것을 나는 순간이라는 시간의 파편 속에서 듣고 보았던 것이다. 하늘은 너무도 붉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생각했다. 왜 내가 소리 지르지? 나는 티아! 라고 외치며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

And the man who hated me was calling too, Bertha! Bertha! The wind caught my hair and it streamed out like wings. It might bear me up, I thought, if I jumped to those hard stones. But when I looked over the edge I saw the pool at Coulibri. Tia was there. She beckoned to me and when I hesitated, she laughed. I heard her say, You frightened? And I heard the man's voice, Bertha! Bertha! All this I saw and heard in a fraction of a second. And the sky so red. Someone screamed and I thought, Why did I scream? I called 'Tia!' and jumped and woke. (123-24)

앙투아네트는 꿈 속에서 그녀가 뛰어놀던 쿨리브리의 강과 그녀와 인종 갈등을 빚었던 티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앙투아네트의 꿈에 티아가 재등장한 것에 대해 유승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 시켜주는 형재애의 대상”(144)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백인이지만 순수한 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앙투아네트는 로체스터가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이 그녀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장소라고 여기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앙투아네트는 속박되고 억눌려 있는 그녀의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보호자로 있는 그레이스 풀이 잠들기를 기다리며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걸음을 옮긴다. 앙투아네트가 가진 분노와 힘은 남성 위주의 사회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녀가 가진 울분과 감정을 표출할수록 로체스터는 사회의 관념에 따라 앙투아네트를 고립시키고 또 다른 폭력을 가한다. 앙투아네트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안타깝게도 죽음 밖에 없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기다렸다. 그녀가 코를 고는 소리를 들은 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열쇠를 집어 들고 잠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 이제 드디어 나는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알았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촛불이 깜박거렸고, 나는 촛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손으로 바람을 막아주자 촛불은 다시 살아나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가는 이 캄캄한 길을 밝혀 주기 위하여.

I waited a long time after I heard her snore, then I got up, took the keys and unlocked the door. I was outside holing my candle. Now at last I know why I was brought here and what I have to do. There must have been a draught for the flame flickered and I thought it was out. But I shielded it with my hand and it burned up again to light me along the dark passage. (124)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결말은 방화와 그녀의 죽음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앞으로 있을 상황을 그리며 끝이 난다. 이 장면은 『제인 에어』에서 광기에 사로잡혀 저택에 불을 지르던 여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 앙투아네트의 방화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친 한 여인의 비극적인 결말이다. 앙투아네트의 죽음은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편견대로 크리올 여성의 광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의 죽음은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회의 부조리와 법적으로 인정된 남편의 권리에서 그녀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앙투아네트와 로체스터의 결혼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비극적이다. 로체스터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그에게 부여한 힘을 이용해 아내를 약자로 만들어버린다. 앙투아네트는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를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모두 잃어버린다. 로체스터는 차남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자신을 갈구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이끈다. 결국 성스럽고 아름다워야 하는 결혼은 제도와 사회가 주는 갈등으로 얼룩진다. 두 인물의 역사와 문화 속에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온 제국주의와 가부장 제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겨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Ⅵ. 결론

지금까지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 나타나는 가부장제와 제국주의가 등장인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제국주의의 폐단을 드러내면서 노예제의 피해자였던 흑인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작품은 티아와 크리스토핀 등을 통해 흑인들의 심리를 보여주면서도 노예제의 가해자인 크리올의 삶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리스는 흑과 백의 인종적 갈등에서 벗어나 백인과 크리올, 크리올과 흑인, 백인과 흑인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제국주의의 피해자가 흑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올 역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아네트는 흑인들을 지배해왔던 식민지의 백인 세력이다. 노예 해방 이후 가해자였던 그녀는 흑인들의 무시와 위협을 받으며 빈곤한 삶을 살게 된다. 유럽의 백인들은 크리올인 아네트를 같은 백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아네트는 고립된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아네트의 재혼은 노예제의 피해자인 흑인들의 증오를 더욱 부추긴다. 가부장적인 메이슨은 아내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제국주의에 물들어 백인 우월주의에 젖은 그는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결국 흑인들의 방화로 저택은 아네트는 터전과 아들 피에르를 잃게 된다.

피에르를 잃은 아네트는 여성에게 부여된 순종적이고 온화한 여성상을 벗어버린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이미지를 벗어난 아네트는 결국 메이슨에게 버림받는다. 삶을 살아갈 이유도 희망도 잃어버린 아네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흑인 남성에게 겁탈당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흑인들의 입장에서 아네트는 노예 소유주의 가문 여성으로 흑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동시에 유럽 백인과 흑인 사회로부터 고립된 제국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인종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인 흑인 여성 크리스토핀은 자신의 굳은 신념으로 당차게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의 헌신으로 아네트와 앙투아네트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백인이 가진 뿌리 깊은 제국주의의 편견은 크리스토핀을 흑인으로 한정한다. 아네트는 크리스토핀의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앙투아네트는 영국에 대해 크리스토핀과 이야기 하면서 크리스토핀을 무식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흑인으로 여긴다.

크리스토핀의 헌신과 진심, 노력은 그녀가 가진 피부색에 종종 가려진다. 백인들은 사건의 정황과 인과 관계를 따지기 전에 흑인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낸다. 로체스터 역시 바른 진실을 이야기하며 대항하는 크리스토핀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크리스토핀의 자유 의지와 자유로운 신분은 영국 백인인 로체스터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 로체스터는 제국주의의 잣대로 흑인의 문화를 평가하여 크리스토핀의 오베아 문화를 협박한다. 이경순의 말대로 크리스토핀은 결국 “대영제국의 남성 식민주의자와 영국법에 의해 추방되고 텍스트에서 사라지게 된다”(152).

앙투아네트는 백인과 흑인에게 배척당하며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흑인 소녀 티아와 친구가 되지만 앙투아네트와 티아의 우정은 견고하지 않다. 쿨리브리 저택이 불에 타던 날 앙투아네트는 티아를 향해 달려가지만 거부당한다.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영국 남성 로체스터와 결혼 하지만 백인과 크리올 사이의 심화된 인종 갈등을 겪는다. 영국법에 따라 로체스터에게 그녀의 재산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위임된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가 가진 크리올의 혈통과 그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의심한다.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에 대해 김보국은 “여성이 성적 희열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경한 일이고, 여성은 오로지 남성을 존중하는 것이 미덕”(54)이라고 설명한다.

로체스터는 앙투아네트를 당대 여성상에서 벗어났다고 규정하여 남편의 권위로 억누른다. 앙투아네트는 그녀의 이름을 부정당하며 소중히 생각하는 장소를 상실한다. 그녀는 든든한 조언자이자 가족이었던 크리스토핀을 잃고 광녀로 인식되어 저택에 감금된다. 자유를 속박당한 앙투아네트가 손필드 저택에 불을 지르고 로체스터와의 연결을 끊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는 그녀를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그녀의 삶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크리올 여성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백인 우월주의와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한다. 김순식은 이 작품이 “여성이 지닌 한계, 더 나아가 인종적 한계”뿐 아니라 “식민주의 담론”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67). 백인과 흑인의 구분에서 벗어나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들의 인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갈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앙투아네트와 아네트, 크리스토핀의 결말은 제국주의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고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용문헌

강서정. 「진 리스의 『광활한 사가소 바다』에 나타나는 장소의 상실과 회복」. 『문학과 환경』 14.1 (2015): 7-26.

김보국. 「침묵하는 기호들의 광기와 치유」. 『동유럽발칸연구』 38.5 (2014): 35-60.

김봉은. 「"타자" 알레고리를 해체하는 제 삼 세계의 인도주의: 진 리스의 『광활한 싸가소 바다』」. 『영미문화』 5.2 (2005): 1-19.

김순식. 「『제인 에어』와 『드넓은 싸르가소 바다』에 나타난 버어사의 전복성」. 『인문과학연구논총』 26 (2004): 65-82.

김영미, 이명호. 「제국주의적 가부장적 남성 주체의 확립과 식민지 아내: 진 리스의『드넓은 사가소 바다』」. 『영미문학교육』 15.2 (2011): 99-122.

김정숙. 「탈 식민 담론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하여」. 『人文科學』 13 (2005): 5-17.

김진옥. 「리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 피지배자의 저항적 혼종성과 지배자의 불안」. 『신영어영문학』 30 (2005): 17-34.

류승희. 「『드넓은 사가소 바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뿌리 없는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대학원 학술논문집』 51 (2000): 21-56.

박윤기. 「진 리스의 『광활한 사르가소 바다』에 나타난 성적함의」. 『영어영문학연구』 35.1 (2009): 73-89.

손영희. 「경계선상의 앙뚜아네뜨: 『드넓은 사가소 바다』 연구」. 『여성연구논집』 23 (2013): 55-81.

유승. 「"...그녀는 반드시 정상적인 인물로 무대에 등장해야 한다" 『드넓은 사가소 바다』」. 『현대영어영문학』 45.1 (2001): 127-47.

윤정길. 「『광활한 싸가소 바다』의 또 다른 해석: 진 리스의 로체스터 축소 전략과 그 의미」. 『영어 영문학』 49.3 (2003): 449-74.

_____. 「19세기 영국 소설에 나타난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간의 이미지 동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 연구」. 『영미문학페미니즘』 9.1 (2001): 71-102.

윤진구. 「『드넓은 사가소 바다』 연구: 사가소 바다의 순환구조와 서사의 순환구조」. 『영어영문학연구』 49.4 (2007): 233-57.

이경순. 「카리브로 향하는 식민지 여성의 혼불: 진 리스의 『드넓은 사르가소 바다』」. 『영어권 소설로 읽는 다른 세계들』.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140-59.

이성진. 「카리브 디아스포라들의 인종적 갈등과 화해: 『광활한 사르가소 바다』와 『내 어머니의 자서전』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6.1 (2013): 115-41.

이현지, 강문구. 「진 리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탈식민주의 연구: 등장인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0.3 (2014): 341-60.

진 리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윤정길 옮김. 서울: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4.

홍성주. 「마리아의 복종과 앙뚜와넷의 일탈: 진 뤼즈의 『사중주』와 『광활한 싸가소 바다』의 비교」. 『현대영미소설』 6.2 (1999): 209-39.

Rhys Jean. *Wide Sargasso Sea*. London: Modern Classics, 2000.

Collection @ chosun